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안전! 일일 소방관의 감회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오토바이를 타고 충청도 말을 하면서 전국을 여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한 덕분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알린 사람이 되었나 보다. 내친김에 일일 소방관이 되어 내 고향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고향으로 향하는 새벽녘엔 차창을 적실 정도의 가랑비가 내렸다. '비가 오니까 축소해서 하겠지'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태안소방서에 도착했다. 아파트 2층 높이는 되어 보이는 빨간 소화기가 나를 반기고 널찍한 주차장에 군함처럼 늠름한 소방서가 눈에 들어온다.

소방관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니 그야말로 각이 딱 잡힌 소방관이다. 제복이 주는 경건함과 비장함이 느껴진다. 일일 선생님으로 모신 사수는 "소방 업무는 불끄기, 구조, 구급 삼단계로 나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차에서 1분 안에 옷을 갈아입고 현장 출동을 해야 합니다. 아주 긴박해요"라면서 교육을 시작했다.

소방서 한편에 군고구마를 굽는 빨간 통이 놓여 있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여쭈었더니 1950년대 원북소방서에서 불을 끄던 소방차라고 설명해 준다. 리어카에 실려 있는 물통에 물을 채우고 경운기 엔진 만한 엔진을 달고 나가서 불을 껐다고 한다. 지금의 커다란 펌프카 소방차에 비교하니 그저 장난감 같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소방차였을까.

그런데 설명해 주시는 소방관은 아주 앳된 소녀로 보이는 소방관이었다. "잠깐만요. 학생 아니세요?"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소방관 맞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직접 불도 끄러 나가세요?" 했더니 "네 직접 불을 끄러 나갑니다. 불 끄는데 남녀와 나이 구분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목소리는 오히려 더 크고 당당했다.

이어서 바로 특수 구급 훈련 장소로 이동했다. 구조해야 하는 환자를 만났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이다. 맨 먼저 119에 신고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자동제세동기(AED)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그사이 나는 한 손의 손가락 사이에 다른 손의 손가락을 끼워 가슴을 누르는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했다. 직장에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직접해 보니 이제는 길을 가다가도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할 것 같다.

이어진 훈련은 산악 사고 등으로 조난당한 환자를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119헬기를 타고 출동하는 일이었다. 헬기에 타기 전 헬기 타는 데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탑승 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바로 탑승해 보니 헬기 안은 응급 구조를 위한 장비들로 가득하다.

나의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구조대 대원으로서 헬기에서 내려 응급환자를 119구급차에 태워 보내는 일이었는데 헬리콥터의 날개가 굉음을 내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니 앉아 있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119 구급차에 태워 보내는 일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방불케 했다.

두 번째 임무는 응급환자가 되는 일이었다. 구조대원이 119헬기에서 철로 된 줄을 타고 나를 구조하러 내려왔다. 구조대원은 환자 의자에 나를 앉히고 서로의 몸을 고리와 고리로 연결하여 119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헬기에 탑승한 후에도 구급대원은 "괜찮으세요?"라고 물으면서 계속 나의 상태를 확인한다. 내가 진짜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하게 환자를 살폈다.

특수 구조라는 임무를 다하고 헬기에서 내린 대원들은 헬기 앞에 일렬로 서서 안전이라는 구호를 붙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를 하고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갔다. 그 과정은 마치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온 용사가 된 기분이었다.

한 나라는 국민을 위해 여러 행정 부서를 두고 대민 봉사를 한다. 모든 부서가 다 저마다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소방 분야는 자기 자신을 오롯이 내려놓고 대민 봉사를 하는 곳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위험해서 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분들이다. 날씨가 겨울을 향해 치닫고 있으니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더욱 감사하게 느껴진다.

종교칼럼

"생명에 고장이 있겠는가"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박중빈 1891~1943)는 이 땅에 새 회상(會上)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첫 사업으로 저축조합운동을 시작하셨다. 1917년 원불교 성지인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의 농촌은 끼니를 갈망하기 어려운 가난에 찌들어 있었다. 구인 제자(소태산 대종사의 첫 표준 제자 아홉 사람)들 역시 이러한 형편에서 크게 다를 바 없는 처지였고 저축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종사는 제자들을 향하여 "현금(現今) 생활이 모두 무산자의 처지에 있으니 의복 음식과 기타 각 용처에 특별한 소비 절약이 아니면 단 기원의 자금을 판출(辦出)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며 저축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제군 가운데 술과 담배를 먹는 자 몇이나 되는고?" "그것이 아니면 생명을 유지에 혹 고장이 없을 것인가?"라고 물으셨다.

이러한 질문은 의복과 일상생활 그리고 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을 되돌아보도록 하면서 저축의 길을 일깨워 주셨다. "생명에 고장이 있겠는가?" 하는 물음을 되뇌어 가며 절약을 하고 보니 그 가난한 살림들 속에서도 몇 달 만에 적지 않은 자금을 모을 수가 있었고 이 자금을 토대로 바다를 막아 논을 이루는 방언(防堰) 공사를 이루었다. 저축조합의 정신은 교단 경제의 초석이 되었을 뿐 아니라 70년 교단사의 맥을 이루는 중요한 정신으로 이어왔다.

그러나 요즘 능률, 보장, 편리라는 말들이 강조되면서 절약은 난센스로나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절약이란 불편한 일이고 때로는 비능률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편리나 능률을 앞세운 나머지 물자를 소홀히 다루는 일은 크게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대종사께서는 흐르는 물도 아껴 쓰라고 가르치셨고 헌종이 한 장, 노끈 하나도 잘 두었다가 쓸모 있게 사용하셨다고 한다. 물자를 아끼는 일은 경제력을 기워나가는 일일 뿐 아니라 자원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깊이 관심 가져야 할 문제이며 특히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절실한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직면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짊어진 외채는 1000조 원, 한 가정 4인 기준 8000만 원이나 된다고 한다. 가계부채도 늘어 부채 대국, 부채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제 수지의 적자폭이 늘어나는 실정에서 결코 낙관만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빚 살림이란 옛날부터 남의 살림'이란 말이 있다. 기를 쓰고 벌어 보았자 이자를 주고 나면 다시 처지는 것은 빚뿐이란 말이다.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생산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투자가 적절치 못하여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가 선택할 하나의 길이란 특별한 결심과 특별한 인내로 소비 절약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도도한 소비의 물결, 허영의 풍조들을 되돌려 좀 더 실속 있고 사려 깊은 생활로 이끌어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온정의 세계, 동고동락의 균등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일의 첫걸음은 특별한 인내와 결심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부지런히 일하며 덜 먹고 덜 쓰는 근검절약의 길이라고 본다. 소비 절약이야 있는 사람이 먼저 본을 보이고 지도층이 먼저 본을 보여 가며 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종교인부터 앞장서서 실천하고 촉구하여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결단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종사가 물으신 "생명에 고장이 없겠는가?" 하신 말씀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며 불필요한 낭비는 없는가를 반성하여 보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자원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욕망을 채워 줄 물질은 없다"고 한 간디의 말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근검을 통해 자립을 찾고 힘을 합하여 부조(扶助)하고 자원을 아껴 환경을 보호해 나가는 새로운 생활공동체 운동을 일으켜 나갔으면 한다.

기 고

제25회 전남도민의 날을 준비하며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

10월 25일은 전남도민에겐 특별한 날이다. 이날은 생명의 땅 으뜸 전남에 살고 있는 200만 도민들과 1000만 출향 도민들의 날이다. 달력에는 표시되지 않는 기념일이지만 알고 보면 도민들로서는 그 어떤 기념일 못지 않게 의미 깊고 설레는 날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라도'란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천 년 전인 1018년부터 등장한다. 지금의 전남과 전북을 아우르며, 당시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하였다고 한다.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등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 8도 중 천년 역사를 지닌 이름은 전라도가 유일하다.

수백 년을 유지해 오던 전라도는 조선 고종 33년에 와서 행정구역 개편 칙령에 따라 두 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그 남녘 땅을 전라남도라 부르게 되었다. 전라남도 지명이 탄생한 지 100년 후인 1996년, 개도 100주년을 맞아 뜻 깊은 조례를 제정하였다. 10월 25일을 도민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전남의 오랜 역사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를 상징하는 날이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겠다.

그날을 도민의 날로 지정하게 된 배경에는 특별한 의미가 또 있다. '예향 전남'을 상징하는 뜻에서 문화의 달인 10월을, 도민의 의견을 모아 각종 축제·행사를 열기에 좋은 날인 25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듬해부터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시작하였다.

많은 이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날은 도민들의 가슴에 새겨지지 못했다. 제정 초기, 기념일로서 의미를 살리고 축제의 장으로 승화한다는 취지에서 도민의 날에 맞춰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병행 추진했다.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생활체전의 개막식 정도로 인식되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해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 활동에서 도민들의 응집력을 볼 수 있었다. 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에 도민과 향우들의 열망이 하나로 뭉쳤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수해 피해에도 전남인 특유의 대동 정신은 빛을 발했다.

그 놀라운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전남인이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자신감은 덤이었다.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갑작스레 불어닥친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사회 질서 등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드높이고 모든 전남인이 하나되는 도민의 날의 의미를 되살리며,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부터 별도의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올해 25번째를 맞는 전라남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낭만 항구 목포'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13개 프로그램이 도민과 향우들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교양과 통찰의 '으뜸 도민 특강',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을 키워 줄 '스포츠 스타 1일 멘토링', 도민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한 '힐링 콘서트, 오페라 갈라콘서트, 환상 마술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목포 명소 곳곳에서 열린다. 뿐만 아니라 전남의 아름다움과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관, 도민이 만드는 공모전과 전남 사투리 퀴즈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10월 25일, 대미를 장식하는 '전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전남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뜻하는 '다시 전남'을 주제로 도민 화합과 전남의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 기념행사가 '도민의 날'의 부활을 알리는 팡파르였다면, 이번 기념행사는 '도민의 축제'로 거듭나는 첫 막이 될 것이다. 도민의 날의 주인공은 역시 도민이라는 생각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도민의 날 홈페이지에 도민의 의견을 듣는 방도 개설했다. 보다 많은 도민과 향우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분연히 일어섰던 의로운 땅, 국가의 곳간을 채워 주던 풍요로운 땅, 그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시대를 이끌었던 전남인. 이제 다시 도민의 열망과 의지로 전남의 시대를 열게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전남도민의 날'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누리호 절반의 성공 '우주 강국' 밑거름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어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으나 시험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중량 1t 이상의 실용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누리호는 엔진 설계부터 제작·시험 등 개발 전 과정을 순수 국내 기술로 이뤄낸 첫 발사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독자적인 발사체가 없어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다른 나라에서 빌려 와야 했다. 지난해 2월 발사된 인공위성 '천리안 2B호'는 아리안 스페이스사의 발사체를 사용했다.

이번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우주 개발 역량을 축적하는 귀중한 경험과 자산을 얻었다. 발사, 두 차례의 엔진 점화, 로켓 분리, 페어링과 시험 위성 분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한 덕분이다. 여기에는 지난 1992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우리별 1호 이후 30년 동안 축적해 온 첨단 우주기술이 집약돼 있다.

따라서 누리호의 부분적 실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우선 위성이 궤도 진입에 차질을 빚은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발사체 제작 기술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를 성공시켜야 한다. 2030년 달 착륙을 계획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투자와 기술 축적도 필요하다.

우주산업 전진기지인 나로우주센터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전남도는 오는 2035년까지 7700억 원을 투입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을 선진국 수준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집적단지)로 조성, 국가 우주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에 나선 정부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바탕으로 이에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누리호의 성과를 명실상부한 우주강국 실현을 앞당기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보육 부모 몫으로만 방치해서야

장애아동들이 정규 교육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취학 유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지났는데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전국에 12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국내 장애아동의 취학 유예 실태에 대한 정부의 첫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295명 가운데 광주는 89명, 전남은 96명의 장애아동이 포함돼 있다.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정규 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돼 오롯이 부모 등 가족의 손에 의해 보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장애아동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치료나 수술 때문에 혹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취학을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광주의 경우 장애아동의 63%가 거주지 주변에 마땅한 특수학교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지나도 어린이집을 다닌다니 장애아동 교육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설혹 특수학교에 진학하더라도 방과 후 생기는 보육 공백 때문에 취학 유예를 하는 가정도 많았다.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학생보다 훨씬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데 종일반 돌봄이 가능한 학교가 드물어 취학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보육 부담을 장애아동 가정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가 가장 심한 발달장애인을 24시간 365일 돌보는 획기적인 시설로 호응을 얻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육은 공공영역에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을 부모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부와 자치단체, 교육청이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無等鼓

승패의 이유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 다르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다. 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수 요소를 갖춰야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행해진다고 했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예로 들면 행복의 조건이 건강, 외모, 돈, 지위, 학벌 등이라고 가정할 때 이 중에서 한두 개만 빠져도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화생물학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톨스토이의 이 문장을 이용해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만들었다. 그는 '야생동물의 가축화' 과정에서 어떤 동물은 가축이 되지만 어떤 동물은 야생동물로 남는다고 한다. 야생동물 중 효율적인 식성, 빠른 성장 속도, 감금 상태에서 번식, 인간에 대한 비공격성, 예민하지 않는 신경, 바람직한 사회성이라는 여섯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종만이 가축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성공은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가능하며 어느 한 가지 요소라도 갖추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승패를 다투는 스포츠에도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 적용된다. 대체로 승리한 선수나 팀은 이기기 위한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고, 패배한 선수나 팀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긴 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엇비슷하지만 진 팀들은 그 원인이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스포츠 도시' 광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수·감독의 능력과 프런트의 지원 등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들이 부족,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따라 두 팀 모두 내년 시즌에도 여전히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구와 축구에 상심한 광주 스포츠팬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여자 프로배구 신생팀 광주 AI 페퍼스가 창단 첫 경기에서부터 화끈하고 활기찬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시즌 한 세트를 따내기도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단숨에 뒤집은 이들의 '유쾌한 반란'이 광주시민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유제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